

달성군자원봉사센터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봉사 열정에 불 지피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종구)는 지난 26일(토) 문화우체국에서 3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체험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체험해보자는 취지로 '에코 크리에이터'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자원봉사와 개인 성향을 접목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한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활동별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준비됐다. 1교시는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MBTI 검사를 통



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향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교시에서는 학생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 교육과 함께 버려진 청바지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했다.

마지막 교시는 가을맞이 낙엽줍기 캠페인과 정크 아트 활동이었으며, 정크 아트 활동에서 학생들은 직접 주운 쓰레기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완성된 작품은 학생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자료제공:달성군 자원 봉사센터>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 가스레인지 10대 전달
대구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황상문)은 지난 21일(월)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0대를 달서구에 기탁했다.



(주)동궁짬닭, 바우처상품권 전달
(주)동궁짬닭이 지난 24일(목) 감삼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행파트너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100만 원의 바우처상품권을 후원했다.



달서사랑회봉사단, 출범식 및 경로당 후원물품 전달

달서사랑회봉사단이 지난 23일(수) 두류동 금봉경로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700만 원 상당의 주방세제 및 생활용품 전달하는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달서사랑회봉사단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달서구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직접 살피며 후원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출범했다.

이세경 객원기자



한울안중, 지역아동센터에 빵과 쿠키 전달
한울안중학교(교장 변희갑)는 지난 22일(화) 구지면에 위치한 파랑새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직접 만든 소금빵과 쿠키 50여개를 전달했다. 한울안중 제과제빵 동아리 '빵돌이빵순이' 학생들은 3차 전일제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 활동에서 오전부터 소금빵과 쿠키를 만들었다.



가수 이찬원 팬클럽 '대구찬또버스' 컵라면 기부
가수 이찬원 팬클럽 '대구 찬또버스'는 지난 23일(수) 달서구 용산시장 내 무료급식소를 찾아 컵라면 300개를 기부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김밥을 직접 만들어 나누며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닭한마리 행복한집, 삼계탕 100인분 기탁
닭한마리 행복한집(대표 이지수)은 지난 29일(화) 화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전해 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삼계탕 100인분을 기부했다.



달서구 '사랑의 영양꾸러미 사업'

달서구가 지난 23일(수) 취약계층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영양꾸러미 전달식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상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유정)과 연계해 후원자의 영양제 기부(23,160천원 상당)와 후원금(백두병원 800만 원, 달서사랑365 후원금 2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재)금복장학재단, 인재 육성 1,000만 원 기탁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5일(금)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1,000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기탁했다.